기존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하실 생각이죠?

* 처음 설명처럼 주거환경에 가장 적합하게 가능할것이라 예상한다.

기존 유리창에 어떻게 적용할 생각이냐?

* 필름 기반 작동이라서 기존 유리창안에 부착할 예정

필름 전력 소모량 관련해서 온 일 때 불투명이면 오프일 때 투명일텐데 반투명 하려면 전기를 계속 흘려줘야하는거? 그러면 그 부분을 전기세 소모하면서 밝기 유지 시켜야 하는거냐? 온오프 만든 이유는 오프일때는 전기세가 들지 않고 투명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능한데 목적인데 에어컨 같은 경우도 결국엔 기존 에어컨을 자동으로 놔두고 좀 빨리 차갑게 만들고 싶으면 스크린을 꺼버리면 빠르게 냉방되고 에어컨도 자동적으로 자기 온도가 되면 동작을 하게 되는데 그것과의 명확한 차별성을 제가 지금 이야기 들었을 때 모르겠다. 굳이 저게 아니라도 자동 블라인드 자동 커튼이 있는데 순전히 에어컨으로 실내를 빨리 식히기 위해서 창을 가리는거라면 대체제가 많지 않나?

필요없는건 말 그대로 온오프 기능만 있을 때 잠깐의 전력만 사용해서 상을 변화시켜서 유지시키는 경우엔 충분히 말이 맞는데 퍼센테이지를 특정하면서 하는건 조금 고려를 해야할 것 같다.

* 그래서 밝기만 조절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했는데 주간에만 쓰는건 아쉬우니 야간에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사용하면 좋을것같다고 생각했다.

설득력을 가질려면 제목처럼 지금 내용은 스마트 윈도우랑 에어컨 연동하는 내용만 계속 열거하셨는데 제목엔 에너지 절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처럼 그래서 기존 대비 우리 시스템 적용하면 이만큼 줄어든다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제시를 안했네요. 기존에 그냥 에어컨 써서 했을때랑 우리 에어컨 썼을 때 에너지 절감이 90% 10%라도 줄어든다 이런게 있으면 이야기가 될것같은데 그 내용을 전혀 제시제 안한 것 같다. 일반적으로 암막커튼 이런게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 필름이 얼마정도 됩니까? 설치비용까지 다 해서? 설치비용도 그렇고